

곡성군 명품 쌀 '백세미' 지난해 매출 1.75배 상승

2019년 20억→2020년 35억으로 매출 꺾춤...올해 45억 목표



곡성군은 지역 명품 브랜드 쌀이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인 백세미 2020년도 매출액이 35억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2017년도부터 선을 보인 백세미는 매년 완판신화를 이어가며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매출액이 20억 원을 기록하자 2020년에는 30억 원으로 목표치를 상향할 정도로 상승세를 탔다.

그 결과 백세미 판매량은 이같은 기대를 훌쩍 넘어 35억 원의 매출을 달

성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75배 수직상승한 것이다. 올해는 매출액 4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세미는 친환경 유기농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되며 누룽지 향이 가득한 특허 쌀로써 유명해졌다.

특히 작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백세미를 구입한 후 '대통령이 구입한 쌀'로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에는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백세미 후원자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이름을 더욱 널리 알렸다.

또한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면서 전국 유명 백화점과 타워팰리스 SSG 도곡점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백세미의 거침없는 인기는 이제 전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시장인 아마존에 백세미 누룽지를 론칭한 것이다.

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상품군 다양화도 진행한다. 올해는 3.1kg와 8.15kg의 새로운 포장단위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애국 마케팅의 일환으로 3.1절과 8.15 광복절에 맞춰 포장단위를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백세미가 세계적인 명품 농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석곡농협 측도 "고품질 쌀을 재배해주시는 조합원님들과 농업인들 덕분에 높은 판매고를 이룰 수 있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더욱 고품질의 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남도장터·국민안내양TV, 설맞이 화순 농특산물 홍보

"관측행사가 생산농가 위기 극복하는데 도움 됐으면"



화순군은 유튜브 채널 '국민안내양TV'를 통해 화순 농특산물이 소개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이 위탁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관측 행사를 기획했다.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촬영한 각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국민안내양TV'를 통해 볼 수 있다.

화순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남도장터 화순편'은 지난해 12월 하

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잔디마당에서 촬영을 마쳤다.

기획·연출을 맡은 한국국제문화진흥협회는 1월 중 '국민안내양TV'에 남도장터 화순편을 게재할 예정이다.

대추 방울토마토, 유기농 현미 누룽지, 불미나리 인진 쑥즙, 꽃송이버섯, 청국장과 된장, 작두콩차, 돼지감자차 등이 소개된다.

유기농 현미 누룽지 '황금눈쌀' 누룽지는 농업법인 '황금눈쌀'이 직접 재배한 벼를 7분도로 도정해 쌀눈을 고스란히 살려 만든 누룽지다.

쌀눈은 쌀 영양의 66%를 담고 있는 영양의 보물창고로 황금눈쌀 누룽지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제품이다.

이와 함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받은 운주골 정학님 전통식품 청국장과 된장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신체의 기능 저하와 세포 조직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꽃송이버섯 △일반 토마토보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이 풍부한 대추 방울토마토 △숙취 해소와 해독 작용이 탁월한 알칼리성 식품 불미나리 인진 쑥즙이 소개된다.

남도장터 화순편에서는 MC·가수 김정연, 탤런트 김형일, 개그맨 최기정,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서동순 팀장이 출연한다.

방송에서 선보이는 상품을 포함한 화순군의 다양한 농특산물들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살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관측 행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코로나19 취약 외국인 포함종사자·학생 전수조사

오늘부터 15일까지 4개소·대학 3개교 등 800여명 대상

나주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관내 농공단지, 병원, 대학교,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종사자, 학생 전수조사에 나선다.

나주시 보건소 방역당국은 11일 동수농공단지(동수동76번지 일원)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315명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수농공단지는 다양한 산업 부류의 다수 회사가 밀집된 곳으로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방역 취약 지대에 속한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전국 직장,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정보력이 부족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나주시는 집단 감염사례 사전 차단에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123개소, 3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일 확진자 1명을 조기 발견, 즉각적인 방역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았다.

방역당국은 전수조사 대상 시설 대상자 전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급성기병원 4개소(나주종합병원·빛가람종합병원·빛가람병원·NH



미래아동병원)와 대학 3개교 외국인 유학생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 다른 감염 취약지역인 대중교통 종사자 800여명도 별도 일정 조율을 통해 시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방역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방역 조치를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부터 12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 황룡강에 편의시설 문 연다

서삼장미터널·황미교 인근 2개소...29일까지 운영자 모집

장성군이 황룡강 일원에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삼장미터널과 황미교 인근이다. 설치된 시설 접포는 지상 1층 16㎡ 규모로, 계단을 통해 연결된 옥상에는 황룡강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8년 1월 4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이다. 음식점, 분식점,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중 합산 운영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신청 가능).

신청자는 1개 점포에 한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 업종은 휴게음식점, 소매점이다. 휴게음식점과 소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점포운영기간은 연간 10개월(3~12월)이다.

신청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29일까지 장성군청 3층 안전건설과(061-390-7497)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참가자격 검토 후 가격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가격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 결과는 오는 2월 8일 장성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명소인만큼, 친절하고 성실하게 점포를 운영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2022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접수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접수

담양군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2년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체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대상 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종자·묘목식재, 표고배지 등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저온저장고, 가공·유통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작업로, 관정, 표고배배사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포장재)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6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